

# 마귀가 주는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품는 이긴자

온전히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영생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대로 나를 온전히 주장해야만 하나님이 되는 고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좌정한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대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면 마귀의 피가 움직이는 고로 하나님의 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움직여줘야만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피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 나를 못 이기면 제단 나와야 할 거

그런고로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가운데 약 50년이 되어야 완전히 나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그랬죠? 나라고 하는 의식이 몇 십 년 묵은 영이 아니요, 60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묵은 영이 되는 고로 둘 구멍이 영이죠? 그런고로 그 둘 구멍이 영을 완전히 제거하는 비결을 그 영을 제거해 본 사람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승리제단 나오면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아니하니깐 중간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많죠? 이제 그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으면 승리제단 나와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완전히 제거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고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쉬운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급하다는 등, 나는 성격이 못됐다는 등, 이제 그대로 자기 성격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멍텅구리예요. 나를 항상 버리라고 그러는데 내 성질이 뭐 급하고, 내 성질이 뭐

고약하고, 그 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멍텅구리가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버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워 버리고, 하는 것이 시간 시간이 가장 고민거리지 자기 성질이 어떻고 어떻다고 자랑을 한다면 나를 짓이기고 나를 없애는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 반대생활을 거친 후에야 말할 수 있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처음에는 반대 생활을 하고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시간 시간이 형제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이제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완전히 맡기려고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맡기게 되니까 되어졌다고 그랬죠? 맡기는 것이 반대 생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되어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든데 반대 생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온전히 맡기게 되면 이 몸이 누구 몸이야? 하나님의 몸이야. 마음은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죠? 생명은 누구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죠?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 맡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인고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만 가져야지 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한테 찢다가 찢었다고 되는 고로 그러는 마귀 새끼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마음과 몸과 생명을 온전히 반납을 해서 맡기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인고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장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고로 이 사람이 밑살로 가기 전에 남대문 옆에 있는 공영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있을 당시에 이 사람의 막내 누이동생이 결혼식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



구세주 조희성님

사람이 그 결혼식에 못 갔어요. 왜 못 갔으면 이 사람의 몸이 하나님 몸이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옛날 조희성의 동생이 현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런고로 "지금쯤은 결혼식이 끝났겠지." 하는 생각조차 못 했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고로 막내 누이동생의 결혼식에도 갈 수가 없고, 집에도 전화를 걸 수도 없고, 집 생각을 하려 할 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려 할 수도 없고, 가족을 생각하려고 생각할 수가 없고, 과거를 생각하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고로 누이동생 결혼식 날 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간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해봐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고로 묵묵히 자유율법을 지킨 것뿐이에요.

## 자유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

자유율법이라는 건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고로 하나님의 소유 상태에서 움직여 자유율법이지, 하나님의 소유 상태에서 벗어나면 자유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눈을 뜨고, 음식을 먹는 거지, 이제 그대로 나를 위해서 먹고, 눈으로 보고, 말을 하는 것은 자유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자유율법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일을 하고, 걸어 다니고, 눈을 뜨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죄를 안 짓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거 예수가 알았어요? 아주 천 길만 길 아시겠어요? 새끼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죽을 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죽을 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게 바로 죽을 죄야.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건 죽을 짓을 해서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모르죠? 우리가 영생활 짓을 하면 반드시 영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지를 갖는다는 자체가 영생활 짓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지를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가 되면서 영생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런고로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 노릇도 안 하고 천당 가고, 영생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멍텅구리야. 멍텅구리, 아시겠어요? 하나님 만드는 제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노릇을 하려면 하나님의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려니까 마귀의 인격이 되는 마귀의 영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고로 나를 버리기만 하면 바로 인간의 탈을 벗는 거죠? "아, 어려워서 어떻게 그런 길을 겁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나 사실은 사람이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인데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마귀에게 포로가 된 하나님인고로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마귀만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마귀가 완전히 제거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귀만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이 되는 고로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이 되면 저절로 영생의 확신이 서지는 거죠? 나를 버리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 미운 사람의 장점을 순간 생각해야 마음이 사라진다

나를 버리라는 것은 내 마음을 버리라는 거야.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버리려면 화가 날 때에 화내는 요소를 없애버려야죠?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못마땅한 점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그 장점을 생각을 하고 못마땅한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못마땅한 사람의 장점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그 장점을 생각을 하면 못마땅한 생각이 지워지는 거야. 이 사람이 굉장한 투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 보지 않으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려면 상당한 자신과의 투쟁이 있어야 그게 되어지지 자신과 투쟁을 안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되어질까?

도 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기도 해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1초 1초, 순간순간 그 마음을 이제 그대로 자유율법을 지키는 마음

으로 싹싹싹 돌려놓을 때에 이긴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에 나라는 게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어져 가지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하나님이 됐다가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살죠? 그런 마음의 투쟁을 하는 사람이면 이제 그대로 바빠? 명절 날 놀러 가고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바쁜 사람은 어디 찾아 갈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 아시겠어요? 시간 시간이 마음의 투쟁을 해서 시간 시간이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만 승리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이 그러한 마음의 투쟁을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와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능수능란한 선수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대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핼박을 하고 미워도 하고 귀 싸대기를 때리고 매를 맞는 순간 그걸 순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이제 그대로 누구한테 별안간 매를 맞아 우발적으로 화가 나는 것을 휩 돌려서 마땅히 맞아야 할 때를 맞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긴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마귀가 꼭 하고 마귀가 고꾸라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을 이겨야

이 세상 어떤 사람은 이제 그대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다.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기도를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결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죄인들과 부딪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겨야 이루어지고 이긴자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신년도부터는 나와 더불어 투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시간이 초초로 투쟁을 투쟁을 해야죠? 투쟁을 안 하고 허송 생활을 한다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죠?\*

1992년 2월 3일 설교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5장 모세>>

#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다

###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다

(지난호에 이어서)  
그날 밤에 하셋의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남편 투드모세 2세가 요절한 것과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의 죽음을 애로 해하는 그 여미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니라. 하셋은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을 나일 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거두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지이다. 날이 새는 대로 성 밖으로 나가 나일강에 가면 갈대상자를 보리니, 곧 너의 죽은 아이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와 말대로 네가 순복하면, 나 여호와가 하셋을 애굽의 왕으로 세우리라.”

하셋은 공주는 자신의 시녀들에게 아이의 죽음을 입 밖에 내어서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녀는 나일강변에 버려지고 있는 히브리인의 아이를 물레

주위 자신의 죽은 아이를 대신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셋은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가는 것처럼 가장(假裝)하고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일강의 숲에 다다른 공주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냐?”  
시녀들이 열린 달려가서 갈대 상자를 열어 보니까 귀여운 사내아가가 담겨 있지 않은가!  
“공주님,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입니다.”  
“아이 가없어!” 공주가 애처로운 듯 우는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줄 히브리 여자를 구해다 드릴까요, 공주님!” 하고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미리암이 갈대상자에 담긴 아이의 누나인 줄을 모르는 공주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히브리인이 된다면 이 아이

의 출신비밀이 잘 지켜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게 히브리인 유모(乳母)를 구해주되 그 유모에게는 이 아이가 공주의 아가라고 전해야 돼요. 유모는 아이가 젖을 땔 때까지 궁전에서 거하게 될 것이요.”  
아가의 누나는 곧 그 아기를 낳은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는 그녀에게 분부했습니다.  
“이 아기를 내 대신에 젖 먹여 키워주세요. 이다음에 내가 그 값을 드릴 테니까.”  
하(下)애굽의 카이로 성읍에서 남편 투드모세 2세를 여민 하셋은 공주는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와 히브리인 유모를 데리고 상(上)애굽의 데베에 있는 궁전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세를 애



모세를 발견한 하셋 공주

굽의 공주에게 맡기는 데 성공하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위해 배필감으로 그나스 족속의 핏줄을 이어받은 훌 을 정하  
**1** **훌은 가나안 사해 남쪽에 에돔 왕국을 세운 에서(아람의 형)의 후손입니다.**

시어 앞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는 궁전에서 무럭무럭 날마다 잘 자랐습니다. 공주는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일 년 후 아기가 젖을 먹지 않아도 되었을 때, 하셋은 공주는

**훌이 속한 그나스 족속은 애굽의 왕 아모세(Ahmoise)와 투드모세 1세의 고대 근동지방 정복 때에 그들의 포로가 되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스 사람들이 애굽의 종노릇할 때에 이스라엘의 유다지파에 흡수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유다지파에 흡수된 그나스 사람의 혈통에서 '갈렙'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왕비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모 요게벳은 하셋 왕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궁전에서 왕비님의 시녀로 일하게 해주세요”  
하셋 왕비는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잘됐네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경황이 없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아들 모세를 돌봐주기를 바랐는데!”  
한편 하셋 왕비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전처가 낳은 의붓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셋 왕비는 열 살 난 딸을 열세 살 난 의붓아들과 결혼시켰고, 의붓아들은 투드모세 3세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셋 왕비는 열세 살의 의붓아들이 투드모세 3세의 미성년기간 동안 수렴정정(垂簾聽政)을 하였습니다. 하셋 왕비는 왕위 계승자인 투드모세 3세의 섭정자로서 약 20년간 대리정치를 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었으나, 스스로 피라오에 즉위하여 애굽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약한 투드모세 3세는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또다시 2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젤라**